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제 35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옛 편지로 읽는 조선 사람의 감정”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일시 : 9월 22일(금) 15:00 ~ 17:00

○장소 : Zoom 강의실

목차

“옛 편지로 읽는 조선 사람의 감정”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이 자료집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36)

옛 편지로 읽는 조선사람의 감정

전경목(한중연, 조선시대 고문서 전공)

7개 감정으로 읽는 조선시대 일상사



1. 첩 중매를 통해 본 욕망의 변주
2. 가족을 잃은 슬픔 숨기기와 드러내기
3. 밀려드는 청탁과 은폐된 짜증
4. 드러내서는 안 되는 약자의 억울함
5. 일상에 드리운 굶주림의 공포
6. 흔적을 지워야만 하는 불안함
7. 곤경 속에서 드러나는 뻔뻔함

부록 1_세계도

부록 2_수록 간찰 원문

1장 : 첩을 통한 욕망의 변주

혈통 잇기 → 젊은 여자에 대한 성적 욕망 → 가문의 결합

2, 3, 4장 : 서파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 남기

서파 출신이 관리가 되어 겪는 차별과 감내해야 하는 고통들

억울 : 약자가 드러내서는 안되는 감정 → 강자의 보복을 초래

5, 6 장 : 왜 조선시대는 마녀의 사냥이 없었나?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의 공포, 흔적을 지워야만 하는 불안

당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

7장 : 가진 자의 뻔뻔한 요구와 못 가진 자의 희망 고문

유배당한 고위관리와 지방 토호의 검은 거래

부안 우반동에 세거하는 부안김씨 김홍원, 김명열, 김번, 김수종 4대의 편지 이야기

지옥 같은 나날들

체직을 원하는 조선시대 어느 수령의 3 층위의 감정

전경목(한중연, 조선시대 고문서 전공)

체직을 원하는 조선후기 어느 수령의 3 층위의 감정

평산부사 김명열(金命說, 1613-1672),

재임(1666년 9월 - 1669년 11월) 3년 3개월

(1668년 10월 ~1669년 8월, 11개월간 세 층위의 감정)

1 슬픔

가족의 사망과 치병

2 짜증

업무 이외의 격무로 시달림

3 억울

체직 및 휴가 불허

15장의 간찰과 4장의 고문서로 살펴본 김명열의 수령생활



김명열(金命說, 1613~1672)

순번	시기	나이	과거	내직	외직	근거
01	1651/12/17	39	문과급제			지 47
02	1652/02/?	40		권지교서관부정자		첩01
03	1654/10/13	42		조봉대부행교서관정자		지 48
04	/12/27	42		조□대부행봉상시참봉겸교서관정자		지 49
05	1655/03/?	43		조산대부행봉상시참봉겸교서관저작		지 51
06	1656/12/20	44		통훈대부행성균관전적		지 52
07	1657/01/03	45		통훈대부행형조좌랑		지 53
08	/04/13	45		통훈대부행공조정랑		지 54
09	/07/29	45			통훈대부행평양목판관	지 55
10	/08/18	45			통훈대부행강진현감	지 56
11	1662/04/16	50		통훈대부행공조정랑		지 58
12	/06/20	50			통훈대부행경성도호부판관	지 59
13	/07/?	50		어모장군행충무위부사용		지 60
14	/12/20	50		통훈대부행성균관전적		지 61
15	1663/09/05	51		통훈대부행예조좌랑		지 62
16	1664/01/29	52			통훈대부행황주목판관	지 63
17	1665/12/27	53			통훈대부행강화부경력	지 64
18	1666/07/?	54			통훈대부행남원도호부사	지 65
19	/09/11	54			통훈대부행평산도호부사	지 66
20	1670/07/15	58			(남원부사)	승정원일기
21	1670/08/18	58			(순천현감)	승정원일기

연도	김명열	이은상	김우석
1651~1660	교서관 정자, 저작, 성균관 전적, 형조 좌랑, 공조 좌랑, 평양 판관, 강진현감	정언, 지평, 문학, 보덕, 교리, 헌납, 사간, 수찬, 집의, 병조 참의, 승지	정언, 지평, 사서
1661~1670	공조 정랑, 경성판관, 성균관 전적, 예조 좌랑, 황주 판관, 강화 경력, 평산부사, 순천현감	대사간, 승문원 제조, 병조 참지, 대사성, 승지, 예조 참의, 도승지, 형조 참판, 예문 제학, 호조 참판	지평, 장령, 헌납, 집의, 사간, 승지, 형조 참의
1671~1680		도승지, 예조 참판, 한성판윤, 형조 판서	승지, 강원도 관찰사, 우윤, 황해도 관찰사
1681~1690			도승지, 예조참판, 병조 사직, 경기도 관찰사, 개성유수, 형조판서

이은상(李殷相, 1617~1678): 연안이씨, 이정구 손자, 이소한의 아들, 외조는 여주이씨 좌찬성 이상의, 조부 이정구와 백부 이명환은 대제학을 역임, 아버지와 사촌 형제 모두 문장으로 이름을 날림. 1651년(효종 2)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35세), 문과 중시에서 장원.

김우석(金禹錫, 1625~1691): 상산김씨, 대사헌 김덕함의 손자, 김설의 아들, 외조는 이조판서를 역임한 이귀. 27세에 문과 합격.

1. 슬픔

1-1. 아내의 사망

인사 말씀은 생략합니다. 얼마 전에 심부름꾼이 돌아와 보내주신 답장을 받으니 삼가 위로가 됩니다. 서신을 보낸 후, 상제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살피지 못해서 우러러 그리워하는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발인(發靛)을 어느 때로 정하셨습니까? 이 **엄동설한에 천리 상여길**이 얼마나 절박한 형세였는지를 생각하니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저는 **공사간의 자질구레한 일**이 연달아 이어지고, **아이의 병** 또한 심해서 미처 인사를 할 겨를조차 없어 아직도 달려가 위로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죄송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간 동정을 여쭙기 위해 감히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나머지는 예를 갖추지 못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살피주십시오. 삼가 재배하며 글을 올립니다.

무신년 11월 23일 민(民) 우창적(禹昌績) 올림

인근 배천 고을의 수령, 김명열보다 1년 먼저 부임, 문과 급제자로서 동료의식.
심부름꾼을 보내어 위로, 안부 전달. 우창적의 선조 묘가 평산에 있는 듯.(화민 성주)

1-2: 생사의 기로에 놓인 딸과 사위

저는 천리 길을 여행한 끝에 중병을 얻어 이삼 십일 동안 쓰러져 누웠다가, 지금 겨우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은 앓던 병이 매우 위중해서 회생을 바랄 수 없었는데 수 일 전부터 겨우 약간의 살 방도를 찾아 밥을 몇 숟가락 받아먹습니다. 먹고 마심을 이와 같이 하고 병환이 줄어들고 더 심함이 없다면, 거의 소생을 바랄 수 있겠습니다. 병 중에 생각한 약재를 별도로 기록해서 올려 보내니, 있는 것에 따라 보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앓던 병은 쾌차하여 평소와 같습시다만, 얼굴의 딱지가 과반 쯤 떨어진 뒤로는 그 나머지는 떨어지지 않으니, 온 얼굴이 다 들떠 고름이 흐르는 듯합니다. ...약재를 얻기 지극히 어려우니, 만약 얻어서 보내주신다면, (누락) 감사하고 다행이겠습니다.

나머지 많은 말들은 다른 사람 손을 빌려 쓰기에 이만 줄이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사위 송병연

막내딸은 어머니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산으로 달려가 임종하고 시신을 부안으로 옮겨 장례를 치른 후 발병.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가 겨우 회생. 장인에게 약재를 요청.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 법. 딸은 끝내 사망했는지 그의 아들이 우반동에 와서 생활.

1-3: 피방 중인 큰 아들

길에 오른 후 **눈과 바람이 아주 심해졌으니**, 여행 중 건강이 어떠하신지 궁금하며,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이 평상시의 갑절이 됩니다. 조카들은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조카는 한립**(漢立)의 처남인 문가(文哥)의 집에서 잠시 **피방**(避方)하는데, 형세를 살펴보고 동상(東湘)으로 내려오도록 하려 합니다.

태인(泰仁)에 사는 상인(喪人) **조필태**(趙必泰) 씨가 **추노**(推奴)하는 일로 그의 아들을 **평산**에 보내려 하는데 제 편지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관문(官門)에 들어가는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심부름꾼을 보내어 편지로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불러들여 특별히 살펴주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나머지는 다른 편지에 있습니다. 얹드려 바라건대 굵어 살펴주십시오.

기유년 1월 18일 밤에 등불 아래에서 사제(舍弟) 유열 올림

뒤 늦게 아들을 얻었으나 그 중 큰 아들이 장례 후 발병, 피병 중.

장례 후 가족들이 발병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명열은 임지로 되돌아 근무 중이었으나 슬픔이 더욱 가중.

1-4: 갑작스런 서형의 사망

유중(維重)이 아뢰입니다. 지금 호서 관찰사의 서찰을 받았습니다. **공의 서형**(庶兄) 별장(別將)께서 **공산**(公山)에서 **객몰**(客歿)하셨다 하니, 지극히 놀랍고 참담해서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애가 특출하셨으니, 비통함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영감의 조카인 사과(司果)가 저 때문에 먼 곳에 와 있다가 갑자기 부모의 사망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달려갔으니, 저의 심정도 또한 더욱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과 말을 준비하여 보내드렸습시다만, 천 리 먼 길의 무더운 여정(旅程)을 쉽게 가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바라는 바는 그쪽에 도착하면 이들을 호송하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실 일입니다.

기유년(1669, 현종 10) 6월 20일, 민유중이 글을 올림.

가족의 병이 나아갈 무렵, 갑작스럽게 서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公山中軍別將 우애가 깊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형이었기 때문에 상심이 컸을 것. 민유중은 당시 평안감사. 서형은 김후열, 조카 사과는 김몽두(부자 모두 무과 급제)

1-5: 슬픔으로 보낸 나날들

1. 아내의 사망
2. 딸과 사위의 병환
3. 큰 아들의 병환
4. 서형의 돌연사

임지에서 함께 살던 아내가 사망하자 엄동설한에 아내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 가매장을 하고 다시 임지로 돌아옴.

장례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자녀의 병환을 전해 들음.

서형이 돌연히 사망했음에도 달려가 곡조차 못함.

임지에서 홀로 슬픔에 빠져 있었다.

2. 짜증

2-1. 잦은 사행



2-1. 잣은 사행

행차 중에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아내의 병환이 이미 막바지에 이르러 실낱 같은 목숨이 거의 다했지만 아직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즉시 출발하여 사행을 맞이할 준비를 할 계획이었는데, 방금 기절해서 다시 출발을 멈추고 사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이 되도록 만약 죽지 않는다면, 내일 새벽에 본부(本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만 혹시 사행이 도착하기 전에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되어 들어가지 못한 사연을 사행에 급히 보고했습니다. 이곳의 상황을 그대께서도 자세히 아셔서 사행에 알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제가 파직을 당하더라도 불쌍히 여길 것은 아니지만 이때에 만일 계파(啓罷)하는 조처가 있다면 더욱 큰 낭패이니, 그대께서 좋은 말로 주선해 주시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무신년 10월 5일 명열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웁니다.

금교 찰방 이일삼에게 보낸 편지. 찰방은 말을 관리했기 때문에 항상 사행을 수행. 아내의 임종조차 못하는 처지가 안타까움. 파직 당할까 우려해서 좋은 말로 주선해주기릴 원함.

2-2: 토지조사 사업 관련 청탁

다름이 아니라, 지난 번 말씀드린 백생원(白生員)의 일은 성주(城主)께서 이미 지극히 보살펴주셔서, 감관(監官)으로 하여금 일을 헤아려 처리하도록 했는데 마침 수령이 공석중이어서 미처 일을 결말짓지 못했습니다. 이번 양전(量田)할 때를 당해 다시 분부해 주시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헤아려 베풀어 주셔서 저의 생색을 내게 해주심이 어떠하십니까? 이런 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감히 하지 못할 노릇이라는 것을 지극히 잘 알지만 일가(一家)의 정리에 메여서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을 잊고 누누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살피주십시오. 재배하며 올립니다. 기유년 정월 29일 민 우창적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웁니다.

임진 병자 호란 이후 대대적인 양전 사업 실시. 우창적의 청탁을 받고 실무자인 감관에게 지시했으나 김명열의 상으로 중단. 다시 청탁.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자 민원이 답지. 이를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느라 매일 논밭을 오감. (바로 뒤의 이일삼 편지 참조.)

2-3: 왜 도하는 추노의 청탁

듣건대 토지의 등급 등을 다시 조사하는 일로 논밭 사이를 직접 출입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늙음을 재촉하게 하니 어떻게 견뎌내고 계시는지요? 걱정됨이 적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곳으로 가는 이세빈(李世鰲) 생원과 이준백(李俊伯) 생원은 노비를 잡아들이는 일 때문에 어르신 치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권리를 다투는 소송이나 사람을 체포해서 심문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 인심이 억세고 모질어서 좋지 않습니다. 만약 관부의 위엄이 없다면 혹 뜻밖의 변이 생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감히 꾀를 내어 어르신께 부탁드립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하소연한 바를 굽어 채택하시어 사령(使令) 한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형세를 도와, 잡지 못하는 낭패를 면하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기유년 2월 18일 복인(服人) 이일삼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웁니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한창 바쁠 때 금교 찰방 이일삼의 청탁.
지인인 이세빈과 이준백의 노비 추쇄를 도와달라 청탁. 사령까지 붙여줄 것을 청탁.
동생 김유열의 편지, 황해도사 윤계의 편지도 역시 추노 청탁 편지.

2-4: 관내에 많은 관리들의 별장이나 농장

어제 **직접 뵈게 된 것**은 지금까지도 매우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밤에 돌아가신 뒤로 어떠하십니까? 그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염려해주신 덕분에 근근이 지내면서 모친을 모시고 있으니, 달리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사내종과 말은 지시한 대로 보냈는데, 폐를 끼침이 적지 않으니 도리어 매우 **송구**합니다. 나머지 말들은 이만 줄이니 살펴주시기 바라며, 삼가 재배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기유년 2월 1일 기복인(募服人) 시생(侍生) 김창국

추신. 병든 모친께서 **생배**[生梨]를 맛보길 원하는데 구할 수 없습니다. 귀부(貴府)에 혹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김창국은 명문가문의 자제. 증조부-김상헌, 아버지는 김수증(3수6창 중의 하나). 외조는 조한영(척화파). 1666년 진사시 합격
관내 별장이나 농장에 머물며 먹을 거리부터 일상용품까지 청탁.
심지어는 노비의 생활까지 청탁.

2-5: 관리들의 잦은 온천 나들이



2-5: 관리들의 잦은 온천 나들이

서늘해지는 가을에 나으리께서는 정사를 돌보시며 어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그리워 말씀드리기가 황송합니다. **복령군(福寧君)과 복창군(福昌君) 두 분[自家]과 그들의 부인 두 분이 목욕**하는 일로 그 고을에 내려갔는데, 복창군방(福昌君房)은 제가 소속된 궁입니다. **숙부(稊夫)를 불러서 술을 주어 대접하고 쌀과 콩**을 좀 주십시오. 미진한 일이 있으면 돌봐주셔서 저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말들은 이만 줄이니, 살펴주시기 바라며, 삼가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기유년 8월 25일 김마경(金薦敬)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웁니다.

복창군방 소속의 김마경이 김명열에게 보낸 편지. 복령군과 복창군 및 그들의 부인이 온천에 목욕하러 왔으니 궁의 담당자를 불러 위로하고 쌀과 콩 등의 지원을 요청. 복령군과 복창군은 인평대군의 아들. 인평대군은 인조의 3남.

2-6: 끝도 없는 각종 청탁들

남쪽에서 온 쌀은 이미 환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부할 것을 마땅히 세선(稅船)에 실었습니까? 저희 읍에서 받은 것도 또한 환급하려 하는데 감히 이렇게 문의를 드리니 모름지기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새삼씨[兎絲子]는 약초 캐는 자들이 찾아 바친 것이 매우 적어 그들이 바친 것을 몽땅 드리오나 이처럼 소략하니 한스럽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미 풀려서 석역(石役)을 하고자 하는데 철물을 얻기 어려워 개인적으로 가만히 한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귀 고을 창고에 있는 천근의 철물 중 만약 10분의 1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돌을 떼어 낸 후에는 철물을 특별히 쓸 곳이 없으니 곧바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엿드려 부탁드리건대, 백여근의 강철을 빌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유년 2월 12일 기하(記下) 이명담(李命聃)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웁니다.

이담명은 금천 고을 수령. 겸관이었다. 남쪽에서 온 쌀의 반환을 문의. 김명열이 부탁한 새삼씨를 보냄. 석역에 철근이 필요하니 창고에 있는 철물을 빌려줄 것을 요청.

2-6: 끝도 없는 각종 청탁들

저의 아들이 갈 때 편지를 같이 부쳤는데 보셨습니까? **빗돌을 운반하는 일은**, 제 아이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머물며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했기에, 처음부터 **전적으로 성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필시 성주께서는 전답 측량하는 일로 또한 틈 낼 겨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도성에 들어온 이후로 **교정하는 일로 오전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골몰**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금천(金川)의 수령을 오는 길에 뵙고자 했으나, 하인들이 전달하지 않아 만날 약속을 할 수 없었으며, 지금 다시 호조판서의 편지를 받아 파발을 통해 알렸지만, 본래 친한 바가 아니라서 낭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성주님을 찾아가 의논하게 했으니 곡진하게 도와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기유년 3월 11일 성후룡.

금천의 돌이 빗돌로 유명했기 때문에 금천 수령에게 돌을 얻고 운반은 평산부사에게 청탁. 성후룡은 의술로 유명한 인물. 의서 교정을 담당.

2-7 업무 외의 업무로 고생하는 수령들

수령 7사: 농상성(農桑盛),
호구증(戶口增),
학교흥(學校興),
군정수(軍政修),
부역균(賦役均),
사송간(詞訟簡),
간활식(奸猾息)

김명열의 공적 업무: 토지 조사 사업, 사행 지공(농상성, 호구증, 부역균)
사적 업무: 온갖 청탁 처리

자신이 하루 종일 하는 업무를 뒤돌아 보고 관리로서 생활에 회한이 들었다.
그래서 우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3. 억울

3-1-1 체직하도록 해주세요.

부사인 저는 본래 풍토병을 앓아 고질이 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상을 치르고 난 후 증세가 더욱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토지대장 작성하는 일을 당해 감히 병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비위 적발과 여러 공무를 병을 무릅쓰고 거행하느라 아픈 몸을 잊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천식이 날로 심해지고 왼쪽 다리가 아파 걸을 수가 없으며 왼쪽 눈이 찢르든 듯 아프고 찬 눈물이 저절로 흘러 전혀 사물을 볼 수가 없으니 병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리나 떨어진 객지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토지 측량하는 것을 마쳤고 문서 작성은 비록 끝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능히 살펴볼 수 없고 그렇다고 이를 감관에게 전적으로 맡겨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찰사께서 각별히 정세를 헤아리어 속히 처치하셔서 공사가 모두 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69년 3월에 신병 등을 이유로 감사에게 체직 시켜 줄 것을 요청.

3-1-2 감사의 처분

지금 어찌 병을 핑계 댈 때인가? 비록 천식의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출입하고 운동을 하면 이로 인해 나을 것이다. 그러나 피곤하다고 누워버리면 병을 키우게 되어 점차 고통스럽고 위중해지는 것이 천식의 증세이다. 이것으로 사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뿐만 아니라 양전하는 일은 실로 국가의 막중한 사업이거늘 어찌 감색의 손에 맡겨 수고로움을 다하지 않는가? 살피 시행할 일이다.

감사는 김명열이 아픈 것에 대해서 조금의 배려나 동정조차 없었다. 오히려 준엄하게 꾸짖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했다.

3-2 거듭 제출한 체직 요청서

저의 형편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번거롭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중한 증세를 안고 한가한 곳에 거처하며 병을 조리하면 수습될 수 있을 것이지만 평산처럼 길가의 **변다한 곳이 어찌 조리를 할 수 있는 곳이며 직임을 살피면서 병을 치료해서 어떻게 회생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사또께서 저의 신병을 마치 **피병으로 생각하시어** 조금도 가련하게 살피지 않으시고 **매번 물리치는 처분**을 내리시니 하는 수없이 다시 번거롭게 아웁니다....

토지대장 정서는 ... 결코 여름에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종이가 없고 또 정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병세로 **공연히 여름을 보내고 앓아서 가을과 겨울을 기다린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안 작성은 단지 옳겨 쓰는 일에 불과하니** **신구 수령의 교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또께서 저의 병세가 급박한 것과 이미 토지 결부를 산출하고, 결세를 책정했으며 중초를 완수한 상황을 임금께 아뢰어 교체토록 처치하신다면 조정 또한 사또의 처분을 어찌 불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1699년 5월에 감사에게 다시 체직을 요청. 그러나 ‘몸조리하며 직임을 수행하라’ 처분.

3-3 또다시 제출한 체직 요청서

저의 사정과 병세에 대해서는 이미 전일의 사직서에서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누누히 아뢰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지금 사정이 더욱 절박하고 민망한 것은 **죽은 아내를** 가매장한 것을 **다음 달 보름에 개장**하려 하며 지난 달 **사망한 서형의 장사도 다음 달로** 정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또 신병이** 있어 위태로운데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내와 서형을 **장사지내는 날에** 가서 **곡하고 죽음을 전송**할 수 없고, **병든 자식이** 떨어져 서로 만나기를 원하는데도 **가서 보고 구하지도 못한다면** 제가 목석이 아닌데 어찌 **차마 정을 억누르고 관직에 연연하면서 관의 일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사또께서 저의 사정과 병세를 가련하게 여기시어 ... 토지 조사에 관한 일도 완전히 끝냈고, 병든 몸으로는 직임을 살필 수 없는 상황임을 들어서 왕께 아뢰어 처치함으로써 공사간에 편안히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1699년 7월에 감사에게 다시 체직을 요청. 그러나 ‘지금 사직서를 올려 **체직을 요청하는 수**령이 한둘이 아니다. **체직되는 감사**로서 상고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며 거절.

3-4 휴가 요청서

제가 이전에 체직을 요청한 것은 업무를 싫어해서 피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사정과 병세가 답답하고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또께서 끝내 저의 사정을 살피주지 않으시므로 감히 교체를 계속해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가를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은 실로 왕래하는 기간을 등한히 해서가 아니라 정세의 급박함이 소분(掃墳)하는 것보다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또께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살피보지 않고 모두 **거절하는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저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유독 사또의 인자로운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생각해봐도 알지 못하겠으니 극히 황공할 따름입니다....

지금 양안의 중초(中草)가 이미 작성되었고 총수(摠數)도 이미 보고했으며 시급한 일도 잠시 없습니다. 정안(正案) 작성에 드는 **종이를 마련하는 사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매장하고 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양쪽 모두 편안할 것**이며 이승과 저승 모두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휴가 신청이 분수에 맞지 않는 참람한 일이 아니며 사또께서 휴가를 허락하는 처분 역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외람함을 피하지 않고 이에 감히 다시 휴가를 요청합니다.

3-5 박숙영의 편지

저는 초7일 저녁에 이 감영에 도착해서 다음날 방백을 보았는데, 방백께서 먼저 **성주의 말씀이 자신을 강박**한다고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성주의 절박한 사정과 병세가 가볍지 않다는 연유를 절절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방백께서는 개인 사정이 비록 절박하다 할지라도 **공적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고, 토지조사 하는 일을 임금께 아뢰기 이전에 가벼이 체직시킬 수 없으며, 하루 이틀 정도의 거리가 아니면 또한 휴가를 허락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8일 오전에 휴가 청원서가 도착해 마땅히 즉시 올려 보내고 전적으로 성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사(亞使)와 대면**하여 의논한즉, 아사의 말씀이 '내가 힘을 다해 마땅히 감사에게 도모할 것이니, 도모한 후에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통정(通情)**하기를 기다리는데, **8일과 9일은 곧 방백께서 연달아 술에 취하셨고, 오늘 비로소 통정을 한 후에 올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아사의 지휘에 따라 들여보내 올리는 일자가 늦어졌고 **끝내 허락을 얻지 못했습니다**. 방백의 뜻이 이러하니 제가 심히 염려되고, 아사 또한 어찌지 못할 따름입니다. 나머지 말들은 바빠서 이만 줄이니, 성주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삼가 재배하고 편지를 올립니다.

기유년 8월 10일 민(民) 박숙영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입니다.

3-6 황해도사 윤계의 편지

괴로워하고 번민하며 업무를 처리하느라 편지로 안부를 여쭙 겨를이 없었지만 우러러 그리워하는 정은 간절합니다.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그동안 어르신의 정사를 보시는 생활이 편안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러러 위로됨이 많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하루를 1년처럼 보냈습니다.

앞드려 어르신의 심사를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진실로 그치지 않습니다. 순사(巡使)의 고집도 또한 지나친 걱정에서 나온 것인데 하관이 말을 가볍게 해서 마침내 휴가를 얻지 못했으니 우러러 탄식합니다. 저는 임기가 이미 차서 길 떠나야 하는 날이 6, 7일 후인데, 연안(延安) 직로(直路)를 통해 가려고 하니 아마도 인사를 드리지는 못할 듯하여 슬프고 탄식스러울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어수선하여 겨우 여기까지만 쓰고 이만 줄입니다. 바라건대 어르신께서 살펴주십시오.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기유년 추석에 윤계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웁니다.

3-7 감사의 처분

체직은 물론 휴가도 불허

이유: 양안 작성이 국가 사업,
체직을 요청하는 수령이 많음,
감사 자신이 체직됨,
성주가 자신을 강박한다고 주장

체직은 그렇다치더라도 휴가를 불허한 것은 객관적이지 않았다.

황해도사가 고집이라 표현한 점

평산부사가 자신을 강박한다고 한 점은 문과 급제 선후와 관련이 있는 듯

감사: 이성징(李星徵, 1608-?) 연안이씨, 호성공신 연원군 이광정의 손자

1642년에 생원진사 양시 합격. 1662년(현종 3) 문과 급제(31/41)

1668년 4월에 황해감사로 임명. 1669년 7월에 첨지로 임명. 후임은 정륜
김명열(1613-1672) 1651년(효종 2) 문과 급제(17/17)

수령으로서 김명열의 관직 생활(후반기): 슬픔, 짜증, 억울 속의 지옥 같은 나날들

감정을 통제하는 사회관계망

저번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고 지금까지 감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편이 없어 답장을 보내지 못했는데, 바로 이어서 **행차가 이미 온정(溫井)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중에 별일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움이 간절합니다.

저는 공무뿐만 아니라, 막 몸에 병이 생겨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부를 여쭙러 가야 하나 **찾아 뵙지 못하고 있으니 한탄스럽습니다. 되돌아가실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애써 병이 잠시 그치기를 기다려 **찾아 뵙** 생각합니다.

칭념하신 일은 이미 해결했습니다. 잠시 여기까지만 쓰고 이만 줄입니다. 삼가 살펴주시기 바라며, 답장을 올립니다.

- 호혜적이지 않고 일방적 요구만 하는 명문가의 관리
- 짜증이나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며 대대로 쌓아 놓은 사회관계망을 훼손
- 병을 핑계로 바로 달려가지 않고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약속.
- 청탁한 것은 깔끔하게 처리해 뒷말을 남기지 않음.